

# 퇴임사



2023. 11. 10.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 35년의 역사 중 제7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칩니다. 1986년 판사로 임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7년 이상 한 직업인 재판관으로 봉직하다가 정들었던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 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저의 소임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자리에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재판이며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가 재판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판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연구관을 증원하는 등 연구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심판지원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헌법재판 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그 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헌법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모두를 추구하면서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재판관, 뛰어난 역량을 지닌 연구부와 사무처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는 중에도 재판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용기와 노고는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현실과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전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헌법조항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든 제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합니다. 헌법이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현재의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재판,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재판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영원히 확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35년간 쌓아올린 성과와 경험,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있기에, 헌법이 지배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는 헌법재판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공지를 가지고 새로 취임하게 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합심하여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실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룬 헌법재판의 성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세계 속의 헌법재판기관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지만, 헌법재판소와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헌법재판소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6년간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퇴임의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동료 재판관님들과

연구부, 사무처 모든 분들의 열성과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